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헤드라인뉴스 자율주행 등 미래 교통체계 구축에 대대적 투자

산업·경제 비상업적 숙박공유 서비스 연간 최대 60일 허용
캐나다 최초 승차공유 서비스 합법화

사회·복지 임금평등 등 기업 성평등문화 확립 캠페인
여성 노숙인 위생용품, 시민 기부로 지원

행정·교육 지역 커뮤니티와 협력해 폭력사건 근절 추진

도시계획·주택 고령자·육아 지원 위주 지역재생 가이드라인

정보·기타 단순반복 행정업무에 자동화 프로그램 도입
이용 가능한 열린 공간 찾아주는 웹사이트 구축
인공지능 활용해 행정업무 지원·데이터 분석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케이프타운	김소망	시애틀	강민규	오사카	권용수
암스테르담	장한빛	시카고	김영준	베이징	박성은
베를린	신희완	스톡홀름	문선우	상하이	문혜정
	유진경		허윤희	에드먼턴	장지훈
	홍남명	바르셀로나	진광선	토론토	고한나
뉴욕	윤규근	런던	오도영		김용훈
	이수진	버밍엄	정기성	보르도	김준광
	이정근	피렌체	김예름	파리	배세진
	정수지	자카르타	박재현	시드니	정용문
로스앤젤레스	최윤경	도쿄	박재호		
샌프란시스코	김민희		이용원		

자율주행 등 미래 교통체계 구축에 대대적 투자

전기·하이브리드車 인프라 토대 연계형 자율주행체계 구축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 도시교통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는 혁신기술에 기반을 둔 새로운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대대적 투자 계획을 발표함. 새로운 교통체계 목표는 우선 미래교통 트렌드의 핵심인 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 이용 환경을 구축해 보급을 늘리고, 이를 토대로 연계형 자율주행(Connected and Automated Vehicles)체계를 구축해 2036년까지 자율주행자동차 보급률을 30% 이상으로 높이는 것

배경 및 목적

- 전기자동차는 미래교통 트렌드의 핵심 기반
 - 미래교통 트렌드는 자율(Automation), 연계(Connectivity), 전기(Electrification), 공유(Sharing)를 의미하는 ‘ACES’로 변천 중
 - 전기자동차는 ACES 실현의 핵심 기반이며,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에 견줘 많은 이점 제공
 - 경제적 이점: 전기자동차 연료비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25~35% 수준
 - 환경적 이점: 온실가스 배출 통제의 효과적 수단이 되며, 조용한 운행이 가능해 주거지에 적합한 교통수단
- 전기자동차로 전환은 국제적 추세지만, 호주는 상대적으로 전기자동차 판매가 저조
 - 세계적으로 전기자동차는 2020년에는 전체 자동차 판매의 28%, 2040년에는 전체 자동차 판매의 5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 하지만, 호주의 전기자동차 판매량은 전 세계 판매량의 1.3% 수준으로 매우 저조
- 호주의 낮은 전기자동차 이용률은 크게 두 가지 요인 때문
 - 첫째, 호주 전기자동차는 고급차 위주로 판매되기 때문에 가격 장벽이 높은 편
 - 둘째,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가 미흡
 - 호주의 공공 충전소는 총 800곳이고, 충전소 1곳당 인구는 31,635명 (영국의 충전소는 총 14,000곳이며, 충전소 1곳당 인구는 4,717명)
 - 호주 가구의 28%는 주차장에 전력이 공급되지 않아 가정 충전도 불가능

- 뉴사우스웨일스주도 호주의 전반적인 경향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낮음
 - 전체 승용차 295만 대 중 전기자동차는 1,700대, 하이브리드자동차는 28,000대에 불과
 - 공공충전소 공급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지만, 2018년 현재 390곳에 불과

주요 내용

-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연계형 자율주행체계 구축은 주정부 장기 교통전략인 ‘미래 교통 2056’(Future Transport 2056)의 핵심 목표
 - ‘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 계획’(NSW Electric and Hybrid Vehicle Plan)과 ‘연계형 자율주행자동차 계획’(Connected and Automated Vehicles Plan)을 각각 발표
 - 전기자동차 보급은 연계형 자율주행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사업으로 기능
 - 자율주행 차량에 요구되는 기술은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전기자동차에 적용하기 쉽기 때문
- 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 계획의 3가지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영역별 실행조치 제시
 - 3가지 우선순위는 보급 확대, 충전소 인프라 구축, 소비자 정보
 - 주요 간선도로 충전소 설치에 300만 호주달러(24억 원), 통근용 주차장 충전소 설치에 200만 호주달러(16억 원)를 투자할 계획

[표 1] 전기·하이브리드 계획의 주요 실행조치

	현재 시행 중	새로 시행할 계획
보급 확대	- 연방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지침’(Green Vehicle Guide)에 따라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자동차세 저감 - 주정부 차량으로 저가형 전기자동차 브랜드 시범 배치 운영	- 2020~2021년부터 공공기관 차량의 10%를 전기·하이브리드 차량으로 할당 - 2009년부터 전기버스 시범 운행 - 공유차량을 전기자동차로 사용하면 혜택 제공 (차량공유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 방안 마련)
충전소 인프라 구축	- 아파트 설계 시에 전기차량 충전소 설치 지침 (Apartment Design Guide) 제공 - 재개발 등 토지 개발 때 공공충전소를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관료 행정 간소화	- 주요 간선도로에 급속 충전소 설치 - 기차역 주변 통근용 주차장에 충전소 보급 - 택지나 상가 개발 때 전기자동차 친화적인 설계를 의무화하도록 법규 재정비
소비자 정보	- 전기자동차 시범사업 확대 - 전기자동차 대중 인지도 제고 노력	- 전기자동차 구입·이용 관련 정보를 제공할 소비자 정보 플랫폼 구축 - 공공충전소 위치정보를 표준화해서 제공

- ‘연계형 자율주행차 계획’에선 관련 법규 점검, 인프라 구축, 소비자 대비 사업 등의 영역을 설정하고 세부계획을 제시
 - 연계형 자율주행자동차는 사물인터넷(IoT)으로 주변 차량이나 교통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을 구현
 - 주변 교통흐름과 연계되기 때문에 안전하며 교통혼잡 감소 효과 있음
 - 연계형 자율주행체계 구축은 기술 개발과 응용 속도에 따라 실행 일정이 다소 유동적이지만, 2036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보급률을 30%로 높일 전망

<https://www.transport.nsw.gov.au/news-and-events/media-releases/electric-vehicles-theyre-multiplying-its-electrifying>

<https://www.future.transport.nsw.gov.au/plans/nsw-electric-and-hybrid-vehicle-plan>

<https://www.future.transport.nsw.gov.au/plans/connected-and-automated-vehicles-plan>

정 용 문 통신원, jungraphael@gmail.com

비상업적 숙박공유 서비스 연간 최대 60일 허용

독일 베를린시 / 산업·경제

독일 베를린시는 주택의 용도변경금지법에 근거하여 에어비앤비(Airbnb) 등의 숙박공유 서비스를 이용한 민간주택의 무허가 숙박업 운영을 금지해왔지만, 2018년 5월 1일부터는 법을 개정하여 비상업적 숙박공유에 사용하는 주택을 시정부에 등록하게 하고 연간 최대 60일의 관광객용 임대주택 운영을 허용하기로 결정

배경

- 관광업 성장과 더불어 숙박공유 서비스도 성업 중
 - 통일 이후 베를린의 관광업은 지속 성장하여 현재 런던과 파리에 이어 관광객이 3번째로 많이 찾는 유럽 도시가 되었지만, 여러 부작용에 시달리는 중
 - 지난 몇 년 사이 에어비앤비 등의 숙박공유 플랫폼을 이용한 무허가 숙박업소 운영이 증가
 - 2018년 베를린의 에어비앤비용 주택은 약 1만 채, 함부르크와 뮌헨은 각각 5천 채 정도로 파악
- 주거지역 소음·탈세 등 숙박공유 서비스의 피해에 문제 제기
 - 전통적인 관광지보다 일반적인 주거지역을 더 선호하는 숙박공유 서비스 이용객의 특성 때문에 소음, 임대료 상승, 강제 퇴거 등 주민 피해 발생
 - 숙박업 관련법에 저촉을 받지 않아 안전·탈세 등에 끊임없이 문제 제기
 - 숙박공유 서비스로 올린 수익이 연 17,500유로(2,240만 원) 이상일 때는 판매세(Umsatzsteuer) 19%를 부과
- 시정부는 민간 임대주택을 상업적 임대주택으로 불법 운영하는 문제에 적극 대응
 - 시는 숙박공유 서비스의 운영을 용도변경금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단속
 - 지자체는 숙박공유 서비스를 신산업과 구산업 간의 경쟁 문제가 아닌 민간 임대주택을 상업적 관광용 주택으로 불법 운영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 대응
 - 우버(Uber) 등의 승차공유 서비스는 기존의 택시 산업과 큰 마찰을 일으킨 반면, 숙박공유 서비스는 성장하는 여행산업 덕택에 직접적인 마찰이 없는 상황

주요 내용

- 용도변경금지법 개정으로 비상업적 숙박공유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허용
 - 용도변경금지법은 주택을 주거 목적이 아닌 상업 등 그 외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14년 5월 제정한 법으로, 지난해 개정
 - 상업적·전문적으로 관광객용 임대주택을 운영하지 않는 개인은 2018년 5월 1일부터 지역 관청에서 단기(연간 최대 60일) 임대 허가를 받아야 함
 - 시는 해당 주택에 등록번호를 부과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 동시에,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무허가 관광객용 임대주택의 단속도 가능해짐
 - 주주거지가 아닌 보조주거지에는 연간 최대 90일의 숙박공유 서비스를 허가

의의

- 상업적·전문적 관광객용 임대주택 운영과 비상업적 민간주택의 공유를 구분
 - 연간 60~90일의 비상업적 숙박공유 허가는 전 세계 주요도시가 공통적으로 채택한 수준
- 비상업적 숙박공유 주택의 관리와 안전문제 등에 법적조치를 할 수 있게 됨
 - 공유경제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법체계 밖에서 무허가로 운영되던 에어비앤비 등의 관광용 주택을 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안전문제 등에 법적 조치도 가능해짐
- 실제 숙박공유 서비스에 사용되는 주택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 남아
 - 법 개정의 의도와 다르게 많은 주택 소유자가 시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채 숙박공유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업체도 내부정보(주택 등록자 명단) 제공에 비협조적
 - 때문에, 독일 도시에서 숙박공유 서비스가 거둔 수익은 7억 유로(8,960억 원)에 달하지만, 세금 징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용도변경금지법도 효과가 미약
 -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중앙정부에 숙박공유 서비스의 주택 운영 현황과 세금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구
 - 현재 독일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은 없으며, 함부르크시는 지난해 에어비앤비 본사에 숙박공유 서비스용 주택 등록자 명단 제출을 요청했지만 회신이 없는 상황

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wohnen/zweckentfremdung_wohnraum/

<https://www.berlin.de/rbmskzl/aktuelles/pressemitteilungen/2018/pressemitteilung.675390.php>

<https://www.sueddeutsche.de/wirtschaft/steuer-airbnb-tourismus-1.4304650>

https://www.deutschlandfunk.de/zweckentfremdung-von-wohnraum-der-kampf-der-staedte-gegen.3669.de.html?dram:article_id=440823

신 희 완 통신원, heewan.shin@gmx.de

캐나다 최초 승차공유 서비스 합법화

캐나다 에드먼턴市 / 산업·경제

캐나다 에드먼턴市는 지난 2016년 3월 오랜 토론 끝에 우버(Uber) 등의 승차공유 서비스를 합법화하기 위한 차량 렌탈 조례를 캐나다 최초로 통과시켰음. 이 조례는 승차공유 서비스의 운전자 면허 규정, 요금체계, 보험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감독하는 행정비용을 승차공유 서비스 업체가 시정부에 납부하도록 함

배경

- 승차공유 서비스 합법화를 둘러싼 갈등
 - 에드먼턴은 겨울이 춥고 길어 고질적인 심야·겨울철 택시 공급부족 문제가 있었으며, 승차공유 서비스가 이 문제의 해결을 도울 것으로 기대
 - 기존 택시업체는 승차공유 서비스 도입을 두고 무면허 영업과 택시면허를 비교하며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
 - 택시면허(1·2·4종 면허)를 얻기 위해서는 무사고·범죄 기록 조회를 통과하고, 5년간의 방어운전 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매년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고 적합한 보험에 가입해야 함
 - 이에 따라, 택시업체는 영업제한 축소 등의 요구조건을 제시
 - 금요일과 토요일 밤에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제한 철폐, 무제한 심야 운전 확대, 겨울철에만 운전할 수 있는 옵션 제공, 모범 운전자에 한해 승객 수 제한 규정 폐지, 시의 조례에 따른 승차공유 서비스 업체의 운수업 면허 획득 등

주요 내용

- 시의회는 2016년 3월 오랜 토론 끝에 승차공유 서비스 합법화 조례를 캐나다 최초로 승인
- 승차공유 서비스 우버에 운송업체 등록, 보험가입 의무화, 행정비용 납부 등을 지시
 - 우버는 ‘민간 운송업체’로 등록하고 앨버타 주정부가 승인한 보험에 가입해야 함
 - 기존 택시처럼 24시간 영업차량에 적용하는 보험, 또는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일부 시간에만 운영하는 차량을 위한 새로운 보험 중 하나의 보험에 가입

- 우버는 기존 보험 비용이 승차공유 서비스에게는 비현실적으로 높다고 주장하며 두 개의 보험회사와 함께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에 착수
- 우버는 시정부에 승차공유 서비스의 적법한 운영을 관리·감독하는 행정비용 납부
 - 납부 비용은 연회비 5만 캐나다달러(이하 'CAD', 4,250만 원)와 여객 수송 건당 0.06CAD(51원)의 추가금
 - 또한, 장애인의 일반택시 이용 요금을 보조하는 명목으로 연간 2만 CAD(1,700만 원)을 납부
- 공유차량 운전자의 면허 소지와 차량 검사 등을 의무화
 - 우버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조건은 같음
 - 우버 운전자도 택시 운전자와 같은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범죄 전과를 확인받아야 하고, 매년 차량 검사를 받아야 함
 - 기존에는 운전자가 별도의 전문 운전교육·영어교육·방어운전 교육 등을 수료해야 했지만, 이 조건은 전부 삭제되고 운송회사의 위탁교육으로 대체
- 승차공유 서비스의 기본요금은 3.25CAD(2,760원) 이상으로 책정
 - 승객이 사전에 동의하면 그 이상의 가격을 청구할 수 있음
 - 우버 이용요금은 수요가 많은 혼잡 시간대에는 기본요금의 2배 이상 높아지기도 하며, 시장자료 공개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재검토 가능
- 택시요금은 기존 체계를 유지하되, 일부 항목을 조정
 - 택시는 기존의 미터 요금을 계속 부과
 - 택시 기본요금은 3.6CAD(3,060원)이고, 이동거리 135m당 또는 대기시간 24초마다 0.2CAD(170원)가 추가
 - 경로우대 10% 할인이 가능하고, 공항 승객에게는 정해진 운임을 부과
 - 택시요금 수수료와 주말 심야 할증료는 폐지
- 승차공유 서비스는 오로지 앱으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거리에서 바로 이용은 불가
 - 공유차량이 택시처럼 길거리에서 곧바로 손님을 태우는 행위는 조례 위반에 해당
 - 택시도 우버 앱으로 승객을 태울 수 있으며, 앱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은 승차공유 서비스 업체에서 제공하는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반드시 앱을 이용해 택시를 불렀을 때만 적용할 수 있음
- 시정부는 조례에 따라 승차공유 서비스를 관리·감독
 - 시정부는 조례에 따라 승차공유 서비스 업체에 회계장부 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 영업용 운수차량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제대로 납부하는지 확인 가능

- 무면허 영업 운전자에게는 최대 5,000CAD(425만 원)의 벌금 부과 가능
- 우버는 소속 기사 범죄기록의 자체관리 허용을 요청해, 현재 의회가 그 여부를 검토 중
- 앨버타주 보험감독관은 우버의 기존 보험이 승객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한다고 판결
 - 주정부의 보험 정책에 따라 2016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보험상품을 판매
 - 새로운 보험은 승객을 태운 영업시간과 그렇지 않은 시간을 구분하여 보험 혜택을 제공
 - 앱이 활성화되어 있어도 승객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는 운전자에게 포괄적 보험 적용 없이 100만 CAD(8억 5천만 원)의 조건부 제3자 배상책임 제공
 - 승객 탑승 중에 발생한 사고에는 선택 또는 포괄적인 보험이 모두 적용 가능하며 200만 CAD(17억 원)의 제3자 배상책임 보험을 제공

변화와 성과

- 2017년 시의 보고서에 따르면 승차공유 서비스 조례 위반 범칙금 부여 건수는 269건이었고,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3.5% 감소한 수치
 - 공유차량 서비스가 점점 법제도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을 의미
-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택시·리무진 등의 기존 운수사업의 수익은 987,000 CAD(8억 3,895억 원), 승차공유 서비스 업계 수익은 482,000CAD(4억 970만 원)
- 같은 기간 시정부의 영업용 운수차량 관리 비용 수익은 209,000CAD(1억 7,765만 원)의 흑자를 기록

https://www.edmonton.ca/transportation/driving_carpooling/rideshare.aspx

https://www.edmonton.ca/business_economy/licences_permits/vehicle-for-hire.aspx

<https://www.cbc.ca/news/canada/edmonton/edmonton-city-council-uber-1.4602320>

<https://edmontonjournal.com/news/local-news/the-ins-and-outs-of-what-council-passed-for-uber-and-the-taxi-industry>

<https://www.cbc.ca/news/canada/edmonton/uber-to-be-legal-in-edmonton-after-city-council-vote-1.3422479>

장 지 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

임금평등 등 기업 성평등문화 확립 캠페인

독일 베를린시 / 사회·복지

독일 베를린시 상원의회의 건강·보건·평등부는 2018년부터 3개년 캠페인인 “평등이 승리한다 – 기업문화 변화”를 시작하여 기업 내 성평등문화 확립이 직원은 물론 기업에게도 도움이 됨을 강조하며 더 많은 기업이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동헌장을 제정하고, 연도별로 유연근무제 확대, 남녀 임금격차 해소, 경영직 여성 비율 증가 등의 과제를 추진

배경

- 베를린은 독일 내 다른 도시에 견줘 기업 내 여성 차별이 적은 편
 - 2018년 독일 여성은 평균적으로 남성에 비해 21% 적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베를린의 남녀 임금격차는 13%
 - 베를린 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은 29%로 전국(26%)보다 높고, 공공부문 내 여성경영진 비율도 40%에 가까우며 공공기관 감독직 여성 비율은 51% 수준
 - 시정부는 올 1월 국제 여성의 날(3월 9일)을 법정공휴일로 제정

개요

- 상원의회 건강·보건·평등부 주도로 “평등이 승리한다-기업문화 변화” 캠페인 시작
 - 베를린 산업·상공회의소(IHK Berlin), 베를린 수공업회의소(HWK Berlin)의 협력을 바탕으로 2018년부터 3년간 진행되는 캠페인
- 기업이 성평등문화를 지향하도록 자극하며, 성평등이 기업에게 이익이 됨을 강조
 - 저명인사를 기업 캠페인 홍보대사로 임명하고, 기업방문과 동기부여의 날 행사를 진행
 - 이외에도 공동헌장을 제작해 기업이 서명하고 캠페인에 참여하도록 독려
 - “기업 내에 여성과 혼성팀이 많아지면 직원의 동기부여와 장기적 애착심, 기업의 경제적 성공에 도움이 됩니다. 성평등은 공정성·투명성·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지향하는 새로운 기업문화를 요구합니다. 성평등문화 확립으로 직원과 기업 모두가 승리하세요! 이것이 우리 캠페인의 목적입니다!”
 - 건강·보건·평등부 상원의원 딜렉 콜랏(Dilek Kolat)

3개년 캠페인의 주제

- 2018년: 유연근무제
 - 직장과 가정생활을 조화하는 수단으로 남녀 모두의 유연근무제에 초점
 - 유연근무제의 선구자격 기업들을 방문해 이들이 유연근무제의 체인지메이커가 될 수 있었던 실질적 방법을 확인
 - 2018년 11월 5일 ‘동기부여의 날’ 행사를 개최해 유연근무제의 모델과 비용·효과를 설명하고, 기업에서 이를 실현하는 방법을 안내
- 2019년: 임금평등
 - 다른 도시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13%라는 남녀 임금격차의 원인을 분석
 - 남녀의 동등한 임금이나 임금 투명성을 성공적으로 실현한 회사를 방문하고, 동기부여의 날 행사에서 임금평등 문화 실현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공할 계획
- 2020년: 경영직 여성
 -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여성이 경영직이 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두어, 앞선 2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현 방안을 정리하고 이를 확산시키고자 함
 - 여성 경영 참여를 잘 실현한 기업을 방문할 예정이며, 동기부여의 날 행사에서 새로운 행동관점과 그동안의 경험 교환을 위한 플랫폼을 마련한 예정

공동현장 주요 내용

- 남녀평등은 사회·정치적 목표일뿐 아니라 경제적 성공의 필수 토대임을 인정
 - 상호존중·가치평가·인정으로 특징 지워지는 열린 기업문화와 직업세계는 현대 경제에 매우 중요
 - 이는 일과 삶의 균형을 개선하며, 생산성을 높이는 더 성공적인 기업문화임
 - 평등의 관점에서 개방된 기업문화의 가장 바람직한 효과는 여성의 직업전망에 지속 가능성을 늘린다는 것
 - 모든 직원이 일과 사생활을 조정할 수 있는 기본조건을 구현하고자 함
 -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음
- ‘평등의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책임 범위 내에서 다음 사항을 업무에 반영
 - 남녀평등을 확립하고, 모든 경영과 의사 결정 직책에 남녀의 균형 잡힌 참여와 대표성을 보장하는 기업문화를 유지
 - 남녀의 다양한 잠재력을 모두 인정하고, 평등한 기회를 촉진하며 개발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

- 직업과 개인 삶의 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남녀 모두에게 유연근무제를 도입
 - 유연근무제는 개인적 삶의 단계를 고려한 인적자원정책의 맥락에서 이뤄지며, 해당 직원은 이후 파트타임에서 풀타임으로 변경할 수 있음
 - 경영직에도 유연근무제를 적용해 '파트타임 경영' 테스트를 지원하고, 40세 이상의 직원의 커리어 상승을 가능하게 함
 - 동등한 업무를 한 남녀에게 동등한 임금을 지급
 - 중소기업 내에서 가정상황에 따른 근무시간 단축과 휴직을 더 잘 실현할 수 있는 해결책을 지원하고 기업 내의 파트타임 직업훈련을 더 개방
- 2018년 기준 70개 기업이 현장에 서명했으며 많은 기업이 현장에 관심을 보이는 중

Gleichstellung gewinnt. Kulturwandel in Unternehmen

CHARTA Gleichstellung gewinnt - für eine neue Unternehmenskultur in Berlin

Die Unterzeichnerinnen und Unterzeichner dieser Charta sind sich einig, dass die Gleichstellung der Geschlechter nicht nur ein gesellschaftspolitisches Ziel, sondern auch eine wesentliche Grundlage für wirtschaftlichen Erfolg ist.

Eine offene Unternehmenskultur und eine Arbeitswelt, die geprägt ist von gegenseitigem Respekt, Wertschätzung und Anerkennung, sind für unsere moderne Wirtschaft von fundamentaler Bedeutung. Sie verbessert die Work-Life-Balance, macht die Arbeit produktiver und Unternehmen nachweislich erfolgreicher.

Ein In Bezug auf das Thema Gleichstellung besonders wünschenswerter Effekt einer offenen Unternehmenskultur ist, dass sie die beruflichen Perspektiven von Frauen in Unternehmen nachhaltig fördert.

Wir wollen Rahmenbedingungen schaffen, die es allen Beschäftigten ermöglichen, Beruf und Privatleben gut zu vereinbaren. Davon können große wie kleine Unternehmen profitieren, deswegen werben wir für eine „Kultur der Gleichstellung“ und setzen uns im Rahmen unserer Verantwortungsbereiche für folgendes ein:

- ➔ Wir pflegen eine Unternehmenskultur, in der die Gleichberechtigung von Mann und Frau fest verankert ist und die für eine ausgewogene Mitwirkung und Vertretung von Frauen und Männern in allen Führungs- und Entscheidungspositionen sorgt.
- ➔ Wir sehen die unterschiedlichen Fähigkeiten und Kompetenzen von Frauen und Männern als Potenzial und setzen uns dafür ein, sie chancengleich zu fördern und ihnen Entwicklungsperspektiven zu geben.
- ➔ Für eine bessere Vereinbarkeit von Beruf und Privatleben bedarf es der Einführung flexibler Arbeitszeitmodelle für beide Geschlechter im Rahmen einer lebensphasenorientierten Personalpolitik, zu denen auch die Rückkehr von Teilzeit in Vollzeit gehören kann.
- ➔ Dies gilt auch für Führungspositionen. Wir unterstützen Modelle zur Erprobung von „Führung in Teilzeit“ und wollen auch Karriere-Einstiege für Mitarbeitende jenseits des 40. Lebensjahrs ermöglichen.
- ➔ Wir werden Männer und Frauen für gleiche und gleichwertige Arbeit gleich entlohnen.
- ➔ Wir unterstützen Lösungen zur besseren Realisierung von familienbedingten Arbeitszeitverkürzungen und Auszeiten in Klein- und mittelständischen Unternehmen und stehen der Teilzeiterwerbsausbildung in unseren Betrieben offen gegenüber.

Ihre Unterschrift

Diak Kolat, Senatorin für Gesundheit, Pflege und Gleichstellung
Dr. Beatrix Kramm, Präsidentin der IHK Berlin
Stephan Schwarz, Präsident der Handwerkskammer Berlin

Handwerkskammer Berlin
IHK Berlin
Senatsverwaltung für Gesundheit, Pflege und Gleichstellung
be.mil Berlin

[그림 1] 캠페인 롤업 포스터: 상원의원 딜렉 콜랏(왼쪽)과 공동현장(오른쪽)

<https://www.berlin.de/sen/frauen/arbeit/gleichstellung-gewinnt/>

https://berlin.gleichstellung-gewinnt.de/wp-content/uploads/2018/08/180828_Gleichstellung-gewinnt_RollUps.pdf

https://berlin.gleichstellung-gewinnt.de/wp-content/uploads/2018/05/180507_Charta_Unterschriften.pdf

<https://www.berliner-zeitung.de/berlin/gleichstellung-frauen-sind-in-berlins-wirtschaft-gut-vertreten-31121380>

<https://www.tagesspiegel.de/berlin/live-interview-der-berliner-wirtschaft-wie-kommen-mehr-frauen-an-die-spitze/23687962.html>

<https://www.facebook.com/KulturwandelBLN/>

홍남명 통신원, dangmu7722@gmail.com

여성 노숙인 위생용품, 시민 기부로 지원

프랑스 보르도市 외 / 사회·복지

프랑스의 시민단체 ‘헤글 엘레멍떼흐’(Regles Elementaires: 기본적인 생리)는 여성 노숙인에게 꼭 필요한 물품이지만 가격 문제로 구하기 어려웠던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활동을 펼침. 파리·리옹·보르도 등에 설치한 기부박스에 시민이 직접 물품을 기부하면, 이를 수거하여 지원 단체를 거쳐 여성 노숙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30만 개의 위생용품을 나눔

배경

- 프랑스 전체 노숙인 중 여성의 비율은 약 40%로 적지 않은 편
 - 여성 노숙인의 가장 큰 고충은 집이 없지만 생리는 있다는 것
 - 여성 위생용품에 높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노숙인에겐 가격 부담이 큰 상황
 - “생리 중인 여성이 종일 구걸해서 8유로(만 원)를 갖게 되었습니다. 샌드위치 2개 남짓 값이죠. 배가 고프면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이 문제는 일반인은 물론 같은 상황의 남성 노숙인은 미처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 타라 H. 사르미니, 헤글 엘레멍떼흐 창립자

주요 내용

- 시민단체 주도로 여성 위생용품 기부박스를 설치해 30만 개의 위생용품을 나눔
 - 2015년 창립된 여성운동 시민단체 헤글 엘레멍떼흐가 파리와 리옹에 여성 위생용품 기부박스를 설치
 - 지금까지 30만 개의 여성 위생용품을 여성 노숙인과 주거약자에게 재분배
- 기부자가 여성 위생용품을 직접 기부함에 넣으면 단체에서 수거·재분배
 - 기부는 직접 위생용품을 기부함에 넣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누구든 여유가 되는 만큼 기부
 - 헤글 엘레멍떼흐가 주기적으로 수거해 지역 내 여성취약계층 지원단체에 분배하면, 이를 받은 단체가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나누어주는 시스템
- 보르도시에는 올해 첫 여성 위생용품 기부박스를 설치
 - 보르도시의 한 북카페 ‘Buro des possibles’ 한쪽에 첫 기부박스 설치



[그림 1] 보르도시 북카페에 설치된 위생용품 기부박스

- 단체의 취지가 친환경-자연보호 책임주의를 지향하는 카페의 운영방침과 부합하여 카페에 기부박스를 설치하기로 결정
- 여성생리, 특히 취약계층 여성생리의 터부를 깨고 사회의 책임을 일깨움
 - 여성생리의 문제를 말 못 할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필요하면 사회적 지원을 받아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계기

시사점

- 취약계층 개인의 실질적 필요에 더 많은 사회적 관심과 더 세심한 공공지원이 필요
 - 지금까지 일반적인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은 금전적·의료적 지원 등 큰 틀에서 이루어졌으며, 사적인 문제는 개인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는 경향
 - 이는 지원정책의 기본 틀이 취약계층을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지 않고 ‘지원대상’으로서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음
 - 이에 여러 시민·인권단체의 다양한 활동이 국가나 공공기관의 굵은 손길이 닿지 않는 부분을 어루만져 주고 있는 것이 현실
 - 여성 노숙인의 위생용품 문제는 당사자에게는 두 끼분의 식사를 포기해야 할 정도로 큰 문제였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언급은커녕 생각조차 쉽지 못했던 문제

<https://www.20minutes.fr/bordeaux/2441307-20190201-bordeaux-point-collecte-produits-hygiene-intime-femmes-abri>

<https://madeinmarseille.net/42151-collecte-femmes-produits-hygiene/>

<https://www.regleselementaires.com/>

지역 커뮤니티와 협력해 폭력사건 근절 추진

영국 런던市 / 행정장·교육

런던시장 사디크 칸(Sadiq Khan)은 2018년 9월 런던시 내 증가하는 폭력·폭행·상해 사건 사고를 줄이기 위해 폭력근절위원회(Violence Reduction Unit, 이하 'VRU')를 출범시킴. 폭력 트라우마의 정신적 치료,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예방대책 수립 외에도, 의장인 런던시장이 직접 지역 커뮤니티와 소통하며 생활밀착형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

주요 내용

- VRU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음
 - 1. 런던 전역에서 일어나는 폭력·상해 사건의 감소·억제
 - 2. 폭력의 주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사건·사고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
 - 3. VRU와 각 지역의 다양한 커뮤니티가 연합하여 지역 상황에 맞는 장기적인 폭력·상해 사건 감소 대응책 마련
- 폭력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믿음 아래 주요 목표 설정
 -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방식으로 폭력·상해 사건 감소를 위해 노력
 - 다양한 기관·조직과 파트너십을 맺고, 시민과 정보를 공유하며, 폭력성의 초반 징후가 범죄나 폭력사건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
- 정신적 접근방식 도입, 지역 커뮤니티 연합 등 구체적 실천전략 수립
 - 런던 전역에서 일어나는 폭력·상해 사건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접근방식과 더불어 정신적인 접근방식을 취함
 - 모든 형태(총·칼·병·주먹)의 폭력을 줄일 방안을 찾을 것
 - 어린 시절의 폭력 피해에 따른 트라우마가 성인이 된 이후에 폭력성으로 표출되지 않도록 지역의 아동·청소년에게 적시에 도움을 제공
 - 지역 커뮤니티와 파트너십을 맺어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밀착형 해결책 추구
 - 지역 커뮤니티로부터 지역의 최신 현황이나 축적된 정보를 공유
 - 시 차원에서 지역 커뮤니티와 효과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

-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구축된 데이터를 토대로 폭력·상해 사건을 전문적으로 분석하여 폭력 발생의 근본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중·장기적인 폭력 상해 사건 감소 계획에 적용
- VRU의 설립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680만 파운드(95억 2천만 원)의 기금을 마련
- VRU의 활동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커뮤니티
 - 지역의 현황을 자세히 파악하여 다양한 폭력·상해 사건의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커뮤니티와 밀접한 공조가 필요
 - 특히 가정폭력·아동폭력·왕따·학교폭력 등 유소년과 연관된 폭력·상해 사건 정보를 집중적으로 공유
 - VRU의 의장인 칸 시장은 6주마다 지역 커뮤니티 그룹의 대표를 포함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정기 미팅을 가짐



[그림 1] 런던시장과 정기 미팅 중인 지역 커뮤니티 대표자

<https://www.london.gov.uk/what-we-do/mayors-office-policing-and-crime-mopac/violence-reduction-unit-vru>

<https://www.london.gov.uk/city-hall-blog/mayor-sets-violence-reduction-unit-tackle-violent-crime>

정 기 성 통신원, jkseong71147@gmail.com

고령자·육아 지원 위주 지역재생 가이드라인

일본 도쿄도 / 도시계획·주택

일본 도쿄도 타마뉴타운은 고도성장기 일본의 대표적인 신도시였지만, 현재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지역재생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음. 도쿄도는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2040년의 생활상을 고려하여 고령자와 육아가정의 지원을 위주로 한 ‘타마뉴타운 지역재생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목표로 지역재생사업을 계획·추진

배경

- 일본 최초의 신도시였지만, 노후화된 타마뉴타운
 - 타마뉴타운은 도쿄도심의 인구분산을 목적으로 건설된 대규모 주택단지이며, 1970년부터 현재까지 단계적으로 도시정비와 주민 입주가 이어지는 지역
 - 건설 이후 50여 년이 지난 현재 많은 지역이 노후화되었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성 변화로 타마뉴타운 전체의 지역재생사업이 필요한 시점
- ‘도시만들기 그랜드디자인’ 계획을 기초로 ‘타마뉴타운 지역재생 가이드라인’ 수립
 - 타마뉴타운을 ‘타마 이노베이션 교류존’으로 설정하고 2040년 사업 완료 예정
 - 지역재생계획을 각 지역주체와 공유하며 사업을 진행할 예정

타마뉴타운의 현황과 과제

- 현황: 20만 이상의 인구와 양질의 환경을 갖춘 지역
 - 인구계획 목표에 따라 착실하게 인구증가(거주인구: 1980년 약 3만 명 → 2015년 약 22.4만 명)
 - 지구마다 정비기간·정비주체·주택타입을 다르게 계획하였으며, 지구에 따라 인구구성이 편중(초기 입주 지역은 현재 고령화가 진행)
 - 초기에는 배드타운이었지만, 최근에는 직주근접(職住近接)형 생활스타일을 실현
 - 도시기반시설과 교통서비스 등이 충실해졌고, 녹지가 많아 주거환경이 양호하며 지진에도 비교적 강해 주민과 입주기업의 평가가 좋은 편
- 과제: 저출산·고령화, 생활스타일 변화, 주택 노후화 등에 대응
 - 세대구성 쏠림 현상 해소, 육아가정의 생활편리성 향상, 고령자 이동 원활화

- 생활스타일의 변화에 대응, 유학생용 주택확보와 교류 공간 정비
- 업무기능의 혁신을 돕는 기업 입지를 촉진, 업무시설 리모델링 추진
- 주택 노후화 대응, 공공공간과 도시기반 시설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 대규모 재해 발생 시 피해 경감 대책 수립

타마뉴타운 지역재생이념과 2040년 미래상

- 타마뉴타운 지역재생이념
 - 생활 스타일의 다양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풍부한 녹지 속에서 안심하고 일하면 거주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
 - 다양한 혁신을 창출하고, 세계에 통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활력 있는 도시
- 타마뉴타운이 목표로 하는 2040년 생활상
 - 풍부한 녹지와 좋은 생활환경 속에서 첨단기술을 활용한 마을 만들기를 바탕으로 고령자와 육아가정을 지원하며, 다양한 생활스타일과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라도 안심하고 거주하며 일하고 쉴 수 있는 생활 실현
- 지역 단위별로 지향하는 도시구조를 다르게 설정
 - 광역: 광역네트워크를 살리고, 도교를 이끄는 엔진이 되는 ‘교류·연대·도전’의 장소로 발전
 - 지역: 주변과 교류·연대를 강화하며, 지역 전체의 잠재력을 높이는 직주근접형 지역을 조성
 - 지구: 역 주변에 생활기능을 집중하고, 원활한 이동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교류를 가능하게 하고 편의성이 우수한 시가지를 형성
- 질 높은 주거환경, 가치 창출의 거점, 지속가능한 도시 등을 바람직한 지역상으로 제시
 - 풍부한 녹지로 생활의 질이 높은 주거환경 구축
 - 주변지역과 교류·연계하기 쉬운 입지를 살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거점으로 다양한 혁신을 창출
 - 풍요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이 집약된 지속가능한 도시

지역재생 사례

- 공유지 토지교환 등을 활용한 도시기능의 재배치
 - 공유지를 활용하여 역과 도로 주변의 도시기능을 재배치하여, 누구라도 생활하기 쉬운 지역구조로 재편

- 계단 대신 경사로를 설치하여 무장애화를 실현하고 이동하기 편리한 거리로 개선
- 단지 내 빈집과 빈 시설 등을 개조하여 다세대 교류거점으로 개편
- 지역포괄케어시스템과 마을 만들기 연계추진
 - 기존 단지를 활용하여, 재택의료·개호가 가능한 시설로 개·보수하고 지역 의사회와 연계하여 재택의료센터를 설치
 - 마을 만들기 측면에서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을 촉진



[그림 1] 타마뉴타운 지역재생 가이드라인 이미지

<http://www.toshiseibi.metro.tokyo.jp/bosai/tama/saisei/guidelines.html>

http://www.toshiseibi.metro.tokyo.jp/bosai/tama/saisei/pdf/guidelines_03.pdf

http://www.toshiseibi.metro.tokyo.jp/bosai/tama/saisei/pdf/guidelines_09.pdf

단순반복 행정업무에 자동화 프로그램 도입

스웨덴 스톡홀름시 / 정보·기타

스웨덴 스톡홀름시는 소프트웨어 로봇으로 불리는 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 이하 'RPA') 프로그램을 행정업무 중 단순반복적이고 통제할 수 있는 업무에 시범적으로 투입하는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업무효율 상승 등 긍정적 결과가 나와 활용처를 늘릴 계획

주요 내용

- RPA는 정확하게 통제 가능한 행정업무 과정을 자동화하는 프로그램
 - 팔다리가 있는 로봇이나 스스로 생각하고 독립적 결정을 내리는 인공지능(AI)과는 구분되는 일종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 인간 노동자와 같은 방식으로 업무의 일정부분을 수행
 - RPA 프로그램은 고유한 사용자 권한을 갖고 있으며, 업무와 연관된 다른 시스템에 접속 가능
- RPA 프로그램 시범 운영은 모든 서비스 운영 부문에서 긍정적 반응을 얻음
 - 시범 운영으로 RPA 프로그램이 통제된 업무 중 가장 단순반복적인 작업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
 - 단순반복 작업을 RPA로 이관하면 근로자가 좀 더 질적으로 숙련된 일에 몰두할 수 있음
 - 근로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 과정의 질적 향상을 가능케 함
- 시정부에서 사용 예정인 RPA 프로그램은 3가지 종류의 플랫폼 소프트웨어로 구성
 - 첫 번째 RPA는 단순반복 작업을 처리하는 서비스 운영에 사용될 것
 - 두 번째 RPA는 시의 재무부서에서 사용하는 재무시스템(Agresso)의 업무 과정을 자동화하는 데 사용될 예정
 - 세 번째 RPA의 용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시 산하 공공기관·공기업 등에서 RPA를 이용한 업무자동화 테스트에 관심을 표명

<http://www.stockholm.se/-/Nyheter/Uppkopplad-stad/Har-ar-nasta-steg-for-RPAer-i-staden/>

허윤희 통신원, yoonhoi.song@gmail.com

이용 가능한 열린 공간 찾아주는 웹사이트 구축

이탈리아 피렌체市 / 정보·기타

이탈리아 피렌체市는 도시 내에 비어있는 열린 공간이 많지만 이용정보 등이 부족한 탓에 시민이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를 인식하고, 도시 내 모든 열린 공간의 위치와 사용 요령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

배경

- 도시 내 비어있는 공간을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
 - 피렌체에는 공공공간의 형태를 띠지만 부분적으로 개인 소유인 공간이 많으며, 이에 따른 빈 공간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
 - 이 공간을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정부가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
 - 이 외에도, 공원·정원 가운데 개인 거주지에 속한 공간이지만 규모가 워낙 커 일반 시민에게도 개방되는 공간들이 있음
 - 이와 같은 열린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치와 정보, 이용시간 등의 데이터가 공유되지 않아 시민이 이용하기 어려웠음

주요 내용

- 시민이 이용 가능한 열린 공간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웹사이트 구축 중
 - 지도 서비스를 기반으로 내 주변의 열린 공간, 또는 용도에 맞는 공간(동호회 미팅용 공간) 등을 찾아주는 검색기능 제공
 - 피렌체를 5구역으로 나누어 구역별 공간 사용 요령 등을 제공하는 오프라인 설명회 개최
 - 각 구역 관리자는 구역 내 새로운 열린 공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가능
 - 3월 중 오픈을 목표로 작업 중이며, 통합된 오픈데이터를 공개할 예정
 - 시정부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약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https://www.comune.fi.it/dalle-redazioni/corso-una-mappatura-degli-spazi-pubblici>

<https://www.seidifirenze.it/2019/02/20/firenze-la-mappatura-degli-spazi-pubblici-disposizione-dei-cittadini/>

김 예 림 통신원, yereumkim@gmail.com

인공지능 활용해 행정업무 지원·데이터 분석

일본 오사카시 외 / 정보·기타

일본 오사카시와 가와사키시 등의 여러 지자체는 인공지능(AI) 기술의 빠른 발전과 그에 따른 응용범위 확대에 힘입어 AI를 행정업무 지원(대화형 FAQ 안내, 신청서류 심사 등)이나 데이터 분석(이주희망자와 이주지역 매칭 프로그램 등) 등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는 시도를 진행 중

배경

- 최근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그 응용범위도 점차 넓어지고 있음
 - 일본 정부는 자치단체가 전자 데이터를 널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마련하고, 총무성에 ‘지역IoT 추진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빅데이터·AI 활용 방안을 검토
 - ‘마이넘버법’(行政手続における特定の個人を識別するための番号の利用等に関する法律: 특정개인의 식별번호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관민 데이터 활용추진기본법’(官民データ活用推進基本法) 등이 근거법으로 기능
 - 이러한 배경하에 일부 지자체를 시작으로 고도의 AI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

주요 활용 사례: 행정업무 지원

- 대화형 FAQ 서비스로 행정절차를 안내하는 가와사키시
 - 방대한 정보 중에서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 절차·제도에 관한 대화형 FAQ 서비스’를 실증실험
 - 키워드나 단문을 입력하면, AI가 시민과 대화하면서 원하는 정보가 게재된 홈페이지에 자동 유도하는 서비스
 - 서비스 이용자의 60%가 편리하다고 평가하였고, 90% 이상이 계속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하였으며, 80%가 원하는 정보의 절반 이상을 얻었다고 함
- 오사카시는 호적업무 위주로 신청서류 심사·판단 업무 지원에 AI를 활용
 - 경험 많은 직원의 대량 퇴직, 직원 수 삭감, 인사교류 활발화에 따른 잦은 인사이동, 고용형태의 다양화(재임용·임시직·파견직 등) 등에 따른 과제 해결이 목적
 - 앞으로 사무처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업무 처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 AI를 활용할 계획

- 요코하마시는 대화형 쓰레기 배출방식 안내 서비스를 시작
 - 2018년 4월부터 AI를 활용한 대화 형식의 쓰레기 배출 방식 안내 서비스 ‘이오 쓰레기 분별 안내’(イーオのごみ分別案内)를 도입
 - ‘NTT 도코모’와 공동실증실험을 진행해 개발하였으며, 배출하려는 쓰레기의 명칭만 입력하면 되는 간편한 방식과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한 점이 특징
- AI기술 개발과 활용을 담당하는 ‘삿포로 AI랩’(札幌A I ラボ)을 설립한 삿포로시
 - 2017년 6월 AI 개발·활용·보급 등을 추진하는 연구센터를 설립
 -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 창출 촉진, AI 관련 기업 정보수집 및 창업 촉진, AI 인재 확보·육성 촉진, AI 기술의 실제사용 촉진을 목표로 한 AI 연구·개발, 인재 확보·육성, AI 활용 프로젝트 추진, 커뮤니티 지원 등을 담당

주요 활용 사례: 데이터 분석

- 후쿠오카시 지역포괄케어 정보플랫폼(福岡市地域包括ケア情報プラットフォーム)
 - 시는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주거·의료·요양·예방·생활 지원을 통합적으로 시행하는 지역포괄케어 체계를 마련할 계획
 - 지역포괄케어 실현을 위해 데이터 수집 시스템, 데이터 분석 시스템, 주택 연계 지원 시스템, 정보 제공 시스템의 4가지 시스템으로 구성된 정보플랫폼을 구축
- AI를 활용해 이주희망자와 이주 후보지역을 매칭하는 이토시마시
 -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AI를 활용해 이토시마시로의 이주희망자와 이주 후보지를 매칭하는 실증실험을 진행
 - 빈집 대책과 지역 활성화의 관점에서 후지쓰연구소·규슈대학과 공동으로 추진
 - 이주희망자가 전용 사이트에 희망 조건을 입력하면 AI가 최적의 이주후보지와 해당 후보지의 구체적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

<https://www.s-ail.org/>

<http://www.city.kawasaki.jp/170/page/0000086637.html>

<http://www.city.osaka.lg.jp/ictsenryakushitsu/page/0000444170.html>

<http://www.city.yokohama.lg.jp/shigen/sub-shimin/study-event/chatbot.html>

http://www.soumu.go.jp/main_sosiki/joho_tsusin/top/local_support/ict/jirei/pdf/2017_019_2.pdf

<https://www.data-max.co.jp/article/18619>

권용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

세계도시동향 제450호

발행인 서왕진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19년 3월 4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개발과 도시 관련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으로부터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센터 출판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담당: 정연우(02-2149-1017, cyw797@si.re.kr)

